

치주염으로 인한 발치후의 자가치아이식술

장봉철, 김재형, 이재목, 서조영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자가치아이식술이란 본인의 치아를 동일 구강내의 어떤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술식을 말하며 통상 보존이 불가능한 대구치를 발치한 발치와 또는 무치악부위에 외과적으로 형성한 치조와에 기능하고 있지 않은 제3대구치를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

치아이식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하나의 치과학문으로서는 1700년대 타가치아이식의 연구로 대두되었으나 타가치아이식의 경우는 이식치아의 보존, 면역반응에 의한 문제등 그 성공 판단기준이 현재 까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반면, 자가치아이식의 경우는 1970년대 이 후 Jens O. Andreasen 등에 의해 치아이식술의 창상치유에 관한 연구 및 임상 응용이 보고된 이래 이 술식은 계속 발전, 보완되고 있으며, 그 임상적용에 있어서 임플란트와 비교 시 치근막에 의해서 골과 결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기에후에 있어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치주염으로 인해 더 이상의 기능이 불가능한 대구치의 발치 후 6주에서 8주경에 제3대구치를 자가이식하여 이식치와 치조골의 양호한 결합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자가치아이식술은 치은연하 우식증이나 치은연하 파절에 의한 발치뿐만 아니라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조골이 다소 소실된 경우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술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봉합술과 치주포대에 의해서만 이식치의 고정을 유도하여 양호한 임상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